

(현장워크숍)

## ‘커뮤니티비즈니스 방식의 지역재생 플랜’, 완주군 지역경제순환센터

충청남도는 사회적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2월 ‘충남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지역의 문제를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민 스스로 해결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적경제가 중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에서 이다. 이에 자치단체 최초로 ‘지역경제순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완주군의 사례를 통해 충청남도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

### ■ 워크숍 개요

#### 1. 목적

- 커뮤니티비즈니스 육성 등 지역경제순환을 위해 선도적으로 ‘지역경제순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완주군을 방문조사하고, 충남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함

#### 2. 행사 개요

1) 일 시 : 2011년 1월 20일(목) 10:30 ~ 15:00

2) 장 소 : 완주군 지역경제순환센터

3) 참석자 : 20명 내외

□ 원내

- 박진도 원장님
- 김정연, 박철희(지역도시연구부)
- 송두범(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성태규, 임준홍, 정재현(기획실)
- 여형범(환경생태연구부)
- 조영재, 허남혁(농촌농업연구부)

□ 원외

- 추옥, 구자승, 최재령(충청남도청)
- 이은애, 명경화(씨즈)

#### 4) 주요 일정

- 10:30 ~ 12:00 : 주제발표

커뮤니티비즈니스 방식의 지역재생 플랜  
(나영삼 완주군 지역경제순환센터장/

- 12:00 ~ 12:30 : 식사

- 12:30 ~ 15:00 : 건강밥상꾸러미 현장방문 및 자유토론

## ❶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지역경제순환센터

인구 8만5천명의 작은 지방도시인 완주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다. 지역의 문제를 지역의 자산을 활용하여 해결하고, 순환과 공생의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완주군 지역경제순환센터’가 있다. 지역경제순환센터는 지난해 6월에 ‘지속 순환형 사회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센터 내에는 특색 있는 5개의 중간 지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간지원조직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 센터들은 각각의 독창적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매개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 마을회사육성센터

마을회사 개념은 참살기좋은마을, 파워빌리지, 두레농장 등 완주군이 그동안 자체사업으로 추진해온 70여개 마을공동체사업을 토대로 ‘주민주도의 자립형 마을회사’ 100개를 육성하겠다는 전략의 표현이다. 이를 위해 마을사무장, 호민관(행정도우미), 마을닥터(분야별 외부전문가) 등 주체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창업보육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 •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커뮤니티비즈니스는 ‘농촌형 소셜 비즈니스’이다. 마을단위 특산물은 물론, 다양한 인적, 물적, 문화 역사적 자산 등을 토대로 사업모델을 만들되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모형이다.

### • 로컬푸드센터

로컬푸드는 밥상 안정을 모토로 농산물 수입개방의 외풍을 이겨내자는 개념이다. ‘얼굴 있는 친환경 먹을거리 생산과 책임 있는 소비’를 통해 지역 내 생산자와 소비자 소통을 활성화하자는 캠페인이기도 하다.

### • 도농순환센터



도농순환은 마을회사 등 농촌형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 귀농·귀촌 인력을 적극 유치하고, 공동체 마을을 연계한 체험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도농교류를 활성화한다는 전략 개념이다.

- **공간문화센터**

공감문화는 옹기제작 등 사장되고 있는 농촌문화자원을 발굴해 상품화하는 공간, 주민들의 칠순잔치나 한여름밤 영화상영이 열리는 공감문화공간, 문화공동체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이처럼 농촌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촌의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5개의 센터가 독립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하나의 큰 틀로 묶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위해 완주군은 지역경제순환센터에서 통합조정하고 있다.

## ■ 지역경제순환센터와 농촌활력과의 협력

농업·농촌의 문제를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지역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경제순환센터는 5가지의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연대하면서 하나하나 실천하고자 하는 고민을 담고 있다.

이러한 고민에 행정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완주군은 전국 최초로 '농촌활력과'를 신설(2010.7)하였다. 정책 결정과 행정적 지원은 농촌활력과에서, 실천적 행동과 주민과의 연계는 지역경제순환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지역경제순환센터의 구성원이 아직 전문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관의 냄새가 있지만 행정의 한계와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인식을 공감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경제순환센터가 주민들에게 보다 다가가서 함께 고민하기 위해 자립에 기초한 민간조직으로 변화도 준비하고 있다.

실제 중간지원조직이 행정조직이나 민간조직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이는 인적자원의 구성, 역량, 지역특성 등에 따라 지역의 성격에 맞게 적용하는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위해 행정과 센터가 함께 고민하는 완주군의 모습은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 ■ 준비된 약속프로젝트와 정책 통합

왜 완주군이 이처럼 실험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진다. 이에 대해 나영삼 순환경제지원센터장은 완주군의 이러한 고민은 농업농촌발전 중장기 전략인 '약속프로젝트(2008.8)'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약속프로젝트는 완주군 농촌농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혁신, 유통혁신, 경영회생, 농촌활력증진, 복지혁신의 5대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5개년 간 500억을 투자하는 농촌·농업의 통합정책인 지역경영정책이다.

약속프로젝트는 농촌·농업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중장기 전략이라는 점 외에, 많은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된 사업을 조정하여 통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즉, 정책을 통합하고, 지원을 통합하고, 주체인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 할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지도록 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군민과의 약속이며, 실천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통합·조정은 많은 전문가들이 제안하고 있지만, 이것이 정책화 되고, 행정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그렇다.

결국, 완주군은 농촌·농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통합'이 필요충분조건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실천을 위해 지역경제순환센터를 만든 것이다.

우리가 완주군의 이러한 정책결정을 높게 평가하는 것은 예산규모가 연 6천억원, 재정자립도가 23.5%인 작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릴 수 있는 쉬운 결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이면에는 비전에 확신을 준 나영삼 센터장의 열정과 이에 대한 군수의 정책적 확신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 ■ 시사점

지방의 작은 도시인 완주군의 새로운 도전과 노력은 기존 행정과 연구자에게 많은 점을 생각하게 한다. 서로의 자기 영역을 강조하는 중앙부처, 새로운 변화에 인색한 행정에게 신선한 충격을 준다.

아직 완주군의 새로운 도전을 평가하는 것은 이르다. 그러나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자치단체라는 점에서 조심스럽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싶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역이 가진 문제를 지역 스스로 찾고, 이를 위해서는 내생적 발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단지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쉽게 포기할 뿐이다.

민선 5기 충청남도도 완주군과 같은 맥락에서 사회적경제를 강조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사회적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 육성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새로운 도전이며, 완주군의 경험에 비추어 이런 점을 생각해본다.

첫째, 완주군과 같이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의 통합·조정이 필요하다. 최근, 중앙정부는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마을기업(행정안전부), 농어촌공동체회사(농림수산식품부), 커뮤니티비즈니스(지식경제부), 자활공동체(보건복지부)를 각기 추진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정책이 여러 이유에서 통합조정이 힘들다면 충청남도도 시군에서라도 통합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행히도 충청남도도 사회적경제라는 큰 틀에서 새롭게 사회적경제(일자리경제정책과 내)를 설치하고,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보다 탄력 있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완주군은 정책의 성공을 위해 지역자산을 지역민 스스로 찾고, 그 방안 역시 스스로 제안하는 역량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지역경제순환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즉, 준비된 마을에 집중 지원한다. 준비되지 않은 마을과 기업에 인력과 돈을 지원하면 성공하기도 쉽지 않지만 성공하더라도 새로운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이에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정책 역시 인건비 중심의 직접적 지원에서 인적 역량강화,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등 근본적인 문제에서 보다 치중하여야 한다. 인건비 지원 위주의 정책은 해당기업의 지속성에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새로운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최소한의 인건비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이러한 접근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야하는 행정에서 결단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완주군에서 추진하는 지역경제순환 정책이나 충청남도의 사회적경제 정책은 지속가능한 발전, 내생적 지역발전,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포기 할 수 없는 정책 패러다임이므로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작성 : 임준홍(기획조정연구실 책임연구원)  
문의 : 041-840-1121 ([jhim@cdi.re.kr](mailto:jhim@cdi.re.kr))



다문화 카페





